

젊은층 공약 키포인트...당락 가를 사전투표제에 사활

광주시장 등 박빙 선거구 조직·지인 총동원 투표 참여 독려 투표일 황금연휴 겹쳐 부동산 위주 사전투표 참여율 높을 듯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가 주요 선거 변수로 떠오르면서 각 후보들이 사전투표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보다 절차가 간단한 사전투표제가 이번 선거에 도입되면서 각 후보 진영은 사전투표가 선거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집중 분석하며 사전투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박빙의 승부처가 예상되는 광주시장 선거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은 사전투표의 주요 대상이 될 젊은층 공약과 함께 조직 및 지인들의 투표 참여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첫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율 평균은 6.93%였으며, 최종 투표율 41.3%를 감안하면 전체 투표자의 17% 가량이 사전투표를 이용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일인 6월4일은 임시공휴일이고 이를 뒤인 6일은 현충일이어서, 5일 하루만 휴가를 낼 경우 4~8일까지 '5일 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따라서 황금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떠나는 대학생과 30~40대 젊은 층의 사전투표가 집중돼 이번 사전투표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달 14일 광주일보 여론조사결과 광주 14.6%, 전남 21.1%가 사전투표제를 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는 사전투표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젊은 층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일정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전투표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사전투표를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40대 중반을 주 지지층으로 보고 50대 중반까지의 부동산층을 포섭하기 위한 생활공약 제시, 20~30대를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등의 전략을 준비중이다.

또한, 각 후보들도 선거일인 6월4일에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사전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해 조직과 지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대무소속 단일후보 간 양자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무소속 후보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율 여부가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약의적으로 이용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사무소와 면사무소 등 행정전선망이 갖춰진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동원 투표와 선심성 관공을 위장한 관공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무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부동층의 투표가 사전투표에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운동 전략을 사전투표일 전까지 맞춰놓고 있다"며 "특히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층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30일과 31일이다. /최원익기자 cki@kwangju.co.kr



6·4 지방선거를 앞둔 20일 광주시 북구의 한 인쇄소에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재자투표 보완...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첫 전면 도입 사전투표제는

■ 부재자투표·사전투표 비교

	기존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투표소	413곳	3,506곳 (8배 ↑) 광주 95곳 전남 298곳
투표 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방법	미리신고, 지정된 투표소	별도 신고 X 신분증 지참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제는 기존 부재자투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해 4월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전국단위 전체 선거에 적용하기는 이번 6·4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전국 읍면동에 한 곳씩 설치해 광주 95곳, 전남 298곳 등 전국적으로 3506곳의 투표소가 있다. 기존 부재자투표에 비해 투표소는 8배, 투표 시간은 6시간 늘었다. 선거 당일에 투표를 못할 경우 미리 신고를 하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해야 했던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 신고 없이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선거 유권자 광주 113만8650명 전남 154만9829명

광주, 30대 이하 구별 10% 격차 전남, 젊은 유권자 첫 30% 붐괴

광주·전남지역의 젊은 투표층(10~30대)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젊은 유권자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의 광주 유권자는 113만8650명(남자 55만6128명, 여자 58만252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광주 전체 인구 147만3304명의 77.29%(제5회 지방선거 74.09%)에 이르는 수치로, 연령대별로는 10대(19세) 2.07%, 20대 17.24%, 30대 20.31%, 40대 22.78%, 50대 18.35%, 60대 10.21%, 70대 이상 9.04%였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속한 연령대는 젊은층과 노년층의 사이에 낀 세대인 '40대'로, 나이·성별로 구분한 비교에서도 남녀 모두 40대(남 11.33%, 여 11.4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젊은 표심으로 분류되는 10~30대 유권자는 39.62%로, 4년 전인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44.02%보다 4.4%포인트 줄었다.

특히 노령층이 많은 동구는 5개 구 중 젊은 유권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34.24%에 머물렀으며, 광산구는 43.31%로 3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집체한 구도심의 영향으로 노령층이 많은 동구와 수완지구 등 신도시 형성에 따른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은 광산구의 특성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의 6·4 지방선거 유권자는 남성 76만6502명, 여성 78만3327명 등 모두 154만982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제5회 6·2 지방선거 당시 150만5506명(남 74만986명 여 76만4520명)보다 4만4323명이 증가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귀농이나 귀촌 인구 증가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으나 30대 이하 유권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19세 유권자는 2만5643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65%, 20대는 20만2781명으로 13.08%, 30대는 23만1771명으로 14.85%를 각각 차지했다. 30대 이하 유권자는 46만195명, 즉 전체 유권자의 29.69%로, 역대 선거 중 처음으로 30%대가 깨졌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10~30대 유권자는 32.97%였다. 특히 당시 30대 이하 유권자가 49만642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3만6227명의 젊은 유권자가 빠져나간 셈이다.

반면 중년층인 40~50대, 장년층인 60대 이상은 두텁게 형성돼 있다. 6·4 지방선거에 나설 40대 유권자는 29만8795명(19.28%), 50대는 30만1390명(19.45%)을 차지했다.

특히 50대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25만6193명으로 17.02%에 불과해 40대에 뒤처졌으나, 4년 뒤인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됐다. 60대 이상도 48만9449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1.59%를 기록, 지난 2010년 45만3912명(30.15%)보다 3만5537명이나 늘었다.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도 지난 2010년 326명에서, 올해 79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연령별 유권자의 비중은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면서 "지역별 연령별 유권자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공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방식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전’ 공약 봇물 세월호 참사 성난 민심 달래기 너도나도 ‘안전한 광주 만들기’

광주지역 6·4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세월호 참사로 화가 난 40대 엄마인 ‘앵그리 맘(Angry Mom)’의 표심을 잡기 위한 안전공약 발원에 집중하고 있다. 자녀를 가진 ‘앵그리 맘’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자며 투표 독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장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한 시민참여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일선 학교 안전교육 강화 등 다양한 안전 정책을 마련, 시행하겠다”며 안전공약을 밝혔다.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지하철과 주유소, 가스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점검과 함께 UN산하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

락구인 ISDR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광주를 생명권 존중의 복지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뒤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여성 안심키가 콜센터 운영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안전공약을 약속했다.

강 시장과 함께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민 이용섭 후보는 이날 안전공약과 관련, “광주시의 안전행정국과 소방안전본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광주도시재난안전사업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완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광주시안전관리감시위원회”를 구성해 매일 시청 전반의 안전문제를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시교육감 선거도 안전공약이 화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학생안전교육센터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안전공약의 포문을 열었고, 양형일 후보는 안전제일 교육환경 구축을 약속하며 맞불을 냈다. /박진표기자 lucky@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한글영수증 발행 가능)

여름방학 무안출발 → 다낭 전세계 (VN항공)총6회
7/30,8/03,8/07,8/11,8/15,8/19

관광 다낭·호이안·후에 3박 5일 **준특급 999,000~**
특급 1,099,000~

유양 다낭/호이안 3박 5일 (호평투어)·노티노옴션 **특급 1,290,000~**
초특급 1,499,000~

※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유류할증료(130,000원/기), 가이드팁성인(40\$)

[추석연휴] 무안-대만 전세계!!! 9/6(토), 단1회!!!

ALL포함 **통격** 대만, 야루, 화련 3박4일 **1,370,000**

아시아나항공으로 떠나는 북경 태항산
북경 태항산 4일 **899,000~**
북경 태항산 5일 **999,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299,000
출발일: 6/10,6/12,6/17,6/19,6/30,7/9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8명 이상 단독여행 가능 (별장 1동씩 드립니다), 주말(목,금)출발은 요일인상됩니다)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399,000
출발일: 6/10,6/12,6/17,6/19,6/30,7/9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대마도 힐링투어2일 (부산, 출→도착) 239,000~

북해도 품객 초특가(단1회 6/10) (광주, 출→도착) 799,000
ALL포함

무안에서 출발하는 민족의 명산 백두산여행!!

무안-연길전세기!!!! (MU항공) (6/27~8/15, 총 15회) 매주 월금 출발

실속 연길,백두산(북파),웅정,도문 4일 **999,000~**

품격 연길,백두산(북파),웅정,도문 4일 **1,089,000~**

실속 연길,백두산(서파+북파),웅정, 4일 **1,059,000~**

품격 연길,백두산(서파+북파),웅정, 4일 **1,159,000~**

실속 연길,백두산(서파+북파),웅정,도문 5일 **1,089,000~**

품격 연길,백두산(서파+북파),웅정,도문 5일 **1,199,000~**

※불포함사항 : 유류세(W93,000), 중국단체비저(W33,000), 가이드/기사팁

국내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 기사비(가이드비)10,000, 현지식비(관광, 자유도시)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비(가이드비)10,000, 현지식비(관광, 자유도시)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불포함: 항공료(한승기준)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공동주최: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비용 1만원, 국내여행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구독권,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한진), *상기 요금은 항공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연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권리 가입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관광비(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항에 따라 다름

이렇듯은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